

2023. 11. 20.(월) 조간용

이 보도 자료는 2023년 11월 19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장

김경원

02-2133-7480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7쪽

자활시설팀장

김완신

02-2133-7492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592명 수료·수강생 작품 130점 전시

- 오세훈 시장, 21일(화) 시청 다목적홀 '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 참석
- 희망과정(시설 중심)+행복과정(서울시립대, 건국대) ... 총 592명 수료 (80% 수료율)
- 철학·글쓰기·역사 등 인문학 중심 ... 체험학습, 심리·건강, 문화·예술 분야도 실시
- 2023년 처음으로 수강생 작품 전시회 개최, 우수 수료자는 서울시 상장 수여

저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도 안주면서 왜 교육을 시키냐며, 그렇게 배웠던 희망의 인문학 과정이 큰 믿음이 되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지혜가 되었습니다. 좋은 인문학 강의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터득되는 것 같습니다.

-수료생 A씨-

희망의 인문학 교육을 듣고 나서, 나와 내 가족에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교수님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는 말 덕분에 마음에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더니 직장을 얻고, 월급도 모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자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경제교육 강사님이 재테크 공부를 하라고 하셨는데 월급관리를 잘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항상 짜푸리고 있었고 마음도 닫혀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열리고 환하게 바뀐 것 같습니다. 시설에서 벗어나 방 두 개짜리 집에서 아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주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수료생 B씨-

갇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렸다. 마음이 성장한다. 10여 년간 정체되어 있던 내가 다시 성장한다고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앞으로가 기대된다.

자신감, 자존감이 강해졌다. 무엇이든 자유롭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희망의 인문학 강의는 나에게 자립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

-수료생 C씨-

□ **서울시는 21일(화) 1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과 수료생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을 개최한다.**

- 이날 수료식에서는 서울시립대와 건국대에서 주관하는 행복과정 수료생들과 노숙인 시설 등에서 주관하는 희망과정 수료생 150여명이 참석하여 수료증을 받는다.
- 또한 수료생들을 축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 전영재 건국대 총장, 행복과정 및 희망과정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 **2023년 희망의 인문학에는 노숙인과 저소득 시민 739명이 참여했으며 그 중 592명(수료율 80%)이 수료증을 받는다.**

-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인 2008년 시작된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과 저소득층 등 우리사회 약자들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자기성찰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립의지를 북돋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4천여 명이 수료했다.
- 희망의 인문학은 2022년 10년 만에 다시 부활하였으며 서울시립대학교의 협조 속에 ‘기본과정(시설) + 심화과정(대학)’을 추진하여 303명이 수료한 바 있다.

□ 올해 희망의 인문학은 수강생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① 인문학 프로그램 범위를 기존의 철학·문학·역사 등 강의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운전면허, 바리스타, 조리사 등의 일자리 관련 강의 ▲심리상담, 음악, 서예 등의 심리·건강, 문화·예술 분야까지로 확대하였으며 ② 대학에서 주관하는 행복과정에 기존 서울시립대 외에 건국대가 참여하여 양질의 인문학 강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③ 노숙인·쪽방주민 외에 자활사업참여 자까지 인문학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과정은 시설 노숙인 등 실제 수업을 듣게 될 이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거쳐 ① 희망과정(시설주관), ② 행복과정(서울시립대·건국대주관), ③ 대학 특강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 희망과정 : 철학, 글쓰기, 문학, 역사 등 인문학 교육을 중심으로, 체험학습, 심리·건강, 문화·예술, 일자리 등 51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참여자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총 32개 시설에서 628명이 수강해 최종 499명(79.5%)이 수료했다.

※ 인문학 희망과정 사진



○ 행복과정 : 노숙인 및 저소득 시민이 직접 서울시립대학교와 건국대로 찾아가 강의를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수강생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인문학 강의를 듣고 학생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고궁 등 역사

체험,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도 진행했다. 시립대에서는 51명이 수강해 43명(84.3%)이 수료하였고 건국대서는 60명이 수강해 50명(83.3%)이 수료하였다. 서울시립대에서는 이번 행복과정을 통해 합창단을 개설하였으며 37명의 수강생들이 총 7번 모여 노래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수료식에서 ‘나뭇잎배’, ‘10월의 어느 멋진날에’ 두 곡의 합창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 인문학 행복과정 사진



- 대학특강 : 서울시립대와 건국대에서는 참여자들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인문학 특강을 대학별 2번씩 총 4회를 진행하였다.

구분	날짜	참석인원	주제	강사
건국대	5.12.	104명	고단한 삶을 헤쳐 나가는 용기의 심리학	김경일 아주대 교수
서울시립대	6.14.	100명	희망의 역사학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
서울시립대	9.20.	94명	한자의 여정	이승훈 서울시립대 교수
건국대	11.3.	77명	꽤 괜찮은 해피엔딩	이지선 이화여대 교수

- 또한 올해에는 참여자들에게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각 과정별로 우수 수료생을 선정해 서울 시장상을 수여한다.
- 이외에도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들으면서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

130여점이 20일에서 22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시민청 (본관 지하 1층 시민플라자 A,B)에서 전시된다.

-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 130여점에는 각종 글쓰기, 캘리그래피, 석고상, 풍경구성화, 목공예, 노리개·만다라, 그림에세이 등이 전시되며,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캘리그래피	추석노리개	무드등	내 인생의 기억들 (글쓰기 실습)

- 오세훈 시장은 “2022년 10년 만에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강의가 부활하여 올해도 자존감을 회복하겠다는 뜻을 가진 많은 분들이 참여했고 성실하게 수강해 수료한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며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고 이웃 시민과의 교류의 장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더 나아가 이 과정이 기회가 되어 희망과 자립, 자활에 성공하는 디딤돌이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앞으로도 서울시는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약자 동행 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희망의 인문학 수료식 개요

2. 보도자료 관련 Q & A

□ **개요**

- 일 시 : '23.11.21.(화) 14: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서울시립대학교, 건국대학교
- 주요참석 : 200명 예정
 - 서울특별시장, 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건국대학교 총장 등
 - 수료생(약 150명) 및 지인, 과정담당 교수(강사)진, 과정운영진 등
- 주요 내용 : 인사말씀·축사, 수료생 시상, 수료증 수여식, 축하공연 등
- 행사 시간

시 간	소요	주요 내용	비 고
14:00~14:05	5`	행사안내(경과보고) 및 내빈소개	사회자
14:05~14:10	5`	과정 영상스케치 상영 (수료생 인터뷰 포함)	행복과정(시립대,건국대), 희망과정
14:10~14:15	5`	인사말씀	서울특별시장
14:15~14:25	10`	축사	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건국대학교 총장
14:25~14:31	6`	수료생 답사	서울시립대학교 수료생 1인 건국대학교 수료생 1인
14:31~14:35	4`	수료증 수여식 (각 대학교 수료생 대표 각 1명)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건국대학교 총장
14:35~14:45	10`	우수자 수상 (시장상3, 시립대총장상3, 건국대총장상3)	서울특별시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건국대학교 총장
14:45~14:50	5`	기념촬영	서울특별시장 등 참석자 모두
14:50~14:55	5`	희망의 합창단 합창 공연	서울시립대학교 수료생
14:55~15:00	5`	축하공연	각 대학교 응원단

Q1. ‘희망의 인문학’이란 무엇인가요?

- 희망의 인문학은 노숙인과 저소득층 등 우리사회 약자들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자기성찰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립의지를 북돋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Q2. 2023년 희망의 인문학의 특별한 점은 무엇입니까?

- 올해 희망의 인문학 강의 중 대학에서 주관하는 행복과정에 기존 서울시립대 외에 건국대까지 참여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노숙인과 쪽방 주민 외에 자활사업 참여자 까지 수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수강생 작품을 서울시청 시민청(본관 지하 1층 시민 플라자 A, B)에서 전시합니다.

Q2. 2023 희망의 인문학 작품전시회는 무엇입니까?

- 희망의 인문학 과정을 들으며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캘리그라피, 목공예, 석고상 등 130여점이 전시됩니다
- 11월 20일부터 11월 22일까지 3일간 서울시청 본관 지하 1층 시민청 시민플라자 A, B에서 진행되며 많은 분들의 관람 부탁드립니다.